

[09/17]

발표를 하고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겨서 팀마다 상금을 준다.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시간투자를 할 수 있을지가 관건.

졸업만 할 거면 형식적으로 해도 되고, 제대로 할 것이면 4년간 배운 것을 활용해서 잘 해도 된다. 심플하게 해도 되고 제대로 할 것이면 우리가 상의해서 알려주라.

모임 횟수도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 빠듯하게 하려면 자주 만나야 한다.

장내 미생물 검사해주는 곳이 따로 있다.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사람 인체 내의 유전자 관련 연구가 있었다. 마크로젠. 유전자 검사하면 체질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안젤리나 졸리가 그 예시. 변을 찍어서 보내면 장 내 미생물을 알려줌.

검사 결과에 대한 것은 API로 받을 수 있음. 그걸 받아서 활용하는 쪽으로 앱을 사용.

채팅솔루션을 생각했다. 웹과 앱이 모두 필요하다. 역할을 나눠서 2명씩 해야한다.

봇보다는 채팅이라는 시스템을 생각하는 것이 낫다. 채팅은 상담쪽으로 갈 것이다. 수준은 카카오톡보다 떨어지더라도 조금 수준 있는 것으로 만들 것이고, 거기서 필요한 대부분의 내용은 전달해줄 것이다. 나머지 만들 것이 생기면 단톡방에 얘기하면 나중에 얘기하자.

채팅이라는 일단 시스템을 개발한다. 뭐가 됐든 오로지 상담만 할 것이다. 키트는 비싸서 활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러한 채팅 모듈이 있다면 환경공단 같은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이는 것도 매주 모여야하고 초반부터 뽕세게 해야 나중에 개발하기 수월하다.

http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로 웹 기반 채팅이 별로 없다. 그래서 nodejs를 쓴다. 서버 안에 들어가는 툴이나 언어들은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안드로이드는 코틀린으로 바뀌어서 그걸 사용하는 방안으로.

추천을 해줄 데이터가 없어서 추천알고리즘은 조금 힘들 것 같다. 하지만 제품군에 대한 추천은 가능하다. 유산균 관련 DB는 다 되어있다.

유산균 사진을 찍어서 알려주는 기능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다.